

사설

다신 이런 만행 없어야

지난 10일 오후에 발생한 경찰의 조계사 법당 난입사건이 수습되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확대될 조짐을 보여 큰 걱정이다.

당시의 현장상황을 보면 경찰이 군화를 신은 채 법당에 난입할 정도로 긴박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참에 서면으로 요청한데서 발단됐다 고 전해지고 있어 많은 불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중요시설은 만인을 위해 보호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난처의 역할도 저버릴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부처님 출가정신 되새기자

조계종 포교원이 출가 열반절을 맞으면서 불자들의 신앙 풍토를 일신시키기 위한 정진주간을 선포하였다.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은 불자들 삶의 처음이자 끝이다. 그리고 그 출가와 열반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욕망의 삶을 떠나 불퇴전의 서원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야 한다. 이번의 정진기간이 바로 이를 확인하고 그 길을 다시 출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욕망의 삶을 떠남에 의해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생명은 시작된다. 그 떠남은 단순히 소극적인 떠남이 아니다.

이번의 정진기간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삶을 본받는 것에서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기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사찰환경수호 활동 본격화

공대위 출범 "북한산 관동로 잠정 중단" 정부 답변 받아

환경분쟁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사찰수행환경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다. 이하 공대위)가 11일 출범해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문제 해결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대위는 13일 추방직 건설교통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낸 데 이어, 18일 김명자 환경부장관 면담을 성사시켰고, 대통령, 국회 건설위 의원 면담도 연속적으로 추진해 사찰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환경 분쟁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두레생태기행,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계 환경단체들과 세미나와 토론회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한다.

지난 11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공대위는 위원장에 성다스님(불교사

들의 수행환경 침해사례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엔 발족한 공대위는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저지에 주력하는 한편, 환경 분쟁을 겪고 있는 개별 사찰들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지원과 함께 이들을 대표해 정부·대기업과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 분쟁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두레생태기행,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계 환경단체들과 세미나와 토론회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한다.

지난 11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공대위는 위원장에 성다스님(불교사

주지, 상임집행위원장에 현고스님(종무원 기획실장)을 선출하고, 상임집행위원에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성오(범어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 성견(회룡사 주지) 스님 등을 위촉하는 등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편 덕천사, 미가사, 홍법사, 망월사 등 북한산 관동도로의 피해를 받는 인근 10여개 사찰들은 14일 망월사 입구에서 관동도로 공사 저지를 위한 '청정도량' 개원식 및 불상봉안식을 봉행했다.

'청정도량'은 스님들이 교대로 정진하며 북한산 관동도로의 승무원 구 반대편인 망월사 입구 공사를 저지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계의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 불교계 대책수립 서둘러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량 보고한 자리에서 민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

일 휴무에 따른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부터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그린벨트법 개정 요구

조계종, 사찰복원·진입로 개설 등 어려워

조계종은 최근 그린벨트내 전통사찰의 경우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가 불허해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계종이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문화자원으로서 전통사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이나 근린시설처럼 건물의 신축과 원형복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시진입로 개설시 구역의 지목별 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과도한 훼손부담금을 감면하고,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건축된 건물의 증축가능면적 선정방법도 명문화 해줄 것도 청원했다. 김원우 기자

인사 4사운동 실천 선포 진각복지재단

성금모으기 전개·홍보물 교계·일반에 배포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 이하 복지재단)은 3월 12일 중앙

동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효암 대표이사를 비롯해 평불협 법사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간 4사 운동 실천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편승엽 씨, 진각복지재단 효암 대표이사,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 지도교수로 위촉된 한성대 황진수 교수(왼쪽부터 순서대로)가 인간 4사운동 차량용 홍보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봉축등 경연대회

봉축위, 4월25일 발표

봉축위원회(위원장 정태)는 4월 23일 조계사 내 불교회관 1층에서 제3회 봉축등경연대회를 실시한다.

봉축 등 경연대회는 등 문화 보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 작품 및 단체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봉축위원회에서 접수하며, 4월 24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02-725-6641-2. 김원우 기자

인간 4사 운동은 인사, 감사, 봉사, 회사를 통해 인간성 회복과 불교정신의 대사회적 구현자는 대사회계몽운동이다. 복지재단은 홍보스티커, 포스터, 저금통 등을 제작해 불교계와 각 복지시설 및 일반 시민에게까지 배포하는 한편, 1% 성금모으기 운동도 전개한다.

효암 대표이사는 "점차 사회가 집단이기주의와 온갖 병폐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전통문화 정신과 맞닿아 있는 불교사상을 통해 사라진 인간성을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운동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이날 선포식에서 한성대 황진수 교수를 지도교수로, 가수 편승엽 정수라 씨를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했다. 김철우 기자

은혜사 승가대학원 지안스님 원장취임

은혜사 승가대학원은 13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대 대학원장 지안스님 취임식 및 3기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지안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승

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학을 진작시키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안스님은 15년간 통도사 강주를 역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입학식에서는 7명의 스님이 입학했으며, 이들은 3년간의 전문 교학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현대)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Buddha figure and a person with a speech bubble. Text includes '여기가 어디라고!!!' and the name '김영민'.

Advertisement for 'Modern Buddhism' (현대불교)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ditorial board, including names like 김광삼, 김명규, 김규석 and various phone and fax numbers.

Advertisement for 'We receive reports' (제보받습니다)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 issues, including phone and fax numbers and the website buddhanews.com.

Large advertisement for 'Snow Mountain White Jade Buddha' (雪山白玉佛) featuring various images of Buddhist statues and a call to action to subscribe to the magazine 'Little Buddha' (조각작품으로).